

회원님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환경부

옥내급수관 진단 시범사업 진행



환경부 산하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은 옥내급수관 진단, 세척 및 갱생기술 등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시범사업은 우선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980년 준공된 둔촌동 주공아파트 2개동 80세대를 대상으로 8월 말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수도관 내부의 녹을 제거하고 관내부 표면에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고, 시공 뒤 마이크로 로봇을 이용한 관 내부 촬영 및 절연도 체크를 통해 코팅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기술이 검증되면 선박배관, 빌딩, 냉각수배관, 소화용배관, 산업용배관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 해외 진출을 통해 물산업 육성의 한 아이টে็ม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폐광 주변 수질오염 막도록 규칙 개정

건설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6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폐광의 폐수처리시설 등 모든 수질오염방지사설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장기화(약 1년 소요)되는 경우 절차를 이행하는 동안 폐수 유출이 계속되어 폐광산의 수질개선 사업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질오염방지사설 중 폐광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연정화시설은 의무적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

하여 폐광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유출로 인한 농작물·토양·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소아 불소 수돗물 섭취 '걱정 없다'



보건복지부가 9월 18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강릉시, 충남 청양군, 충남 서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 전국 6개 시군을 선정해 만 3~7세 이하 소아의 소변불소농도를 측정된 결과 모두 적정치인 0.7~1.2ppm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찬성률은 평균 85%로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지역과 신규 예정지역에 대해 3~5년마다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시설관리시스템 GS인증 획득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시설관리시스템(Water-Way)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획득했다. Water-Way는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한 GIS기

반의 범용시스템으로, 상수도 시설운영을 위한 관망관리, 부속시설관리, 공사관리, 수용가관리, 통계정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GS인증제도는 국제표준에 근거한 소프트웨어 품질시험을 통과한 우수 제품에 대해 국가가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GS인증 획득을 통해 정보화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해외사업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 포스터 콘테스트 수상작 선정



환경관리공단은 지난 10월 10일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4회 환경보전 포스터 콘테스트'의 수상작을 발표해 시상했다. 환경부 후원으로 열린 이번 콘테스트는 환경보전의 소중함, 환경보전 실천 방안, 환경사랑이 인간에게 주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등을 주제로 작품을 공모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신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출품됐다.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총 602점의 출품작을 놓고 공정한 심사를 거친 결과 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9점, 동상 9점, 입선 15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자인 심원중학교 함은주 학생과 노영림 지도교사에게는 환경부장관상이, 기타 수상자에게는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되었다. 한편 공단은 대상 수상작을 포스터로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하고 수상작들을 모아 환경사진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상수도 비전 5개년 계획 발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 수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상수도 비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 3월 착공한 영등포 정수센터에 이어 2014년까지 독도, 구의, 강북, 암사, 광암 정수센터 등 6개 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다. 특히 미세 오염물질 흡착 효과가 높은 '입상활성탄 여과' 공정을 추가해 수돗물 특유의 맛과 냄새를 없애고,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수준인 145개의 수질검사 항목을 263개로 늘리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수돗물 수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초·중·고교에 아리수 음수대 설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 초·중·고 130개 교에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학교 내 수도관 개량 및 아리수 음수대 설치 사업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2010년까지 총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630개 학교에 대해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각 학교마다 16개씩의 음수대가 설치되며, 건물 바깥의 수도계량기부터 각 음수대까지는 음용수 전용배관이 신설돼 오래된 학교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돗물, 24개 지점 검사 적합 판정



부산광역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동아대, 동의대, 동의과학대 수질분석센터와 수질연구소에서 덕산·화명·명장정수장의 취수원수와 정수 그리고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 등 총 24

개 지점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시 발표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색도, 탁도 등 일반항목을 비롯해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농약, 소독부산물 등 총 95개 항목에 대해 검사가 실시됐으며,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빛어울수 병물 생산



광주시가 9월 18일 용연정수사업소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빛어울수' 병물공장 현판식을 열고 빛어울수 생산에 본격 나섰다. 이 병물공장은 동복수원지 원수를 사용하며 자동화 생산시설을 갖춰 하루에 350만ℓ 리 물병 2만병과 1.8ℓ짜 리 물병 3,600병을 생산한다. 수돗물 병물 생산은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수돗물 품질의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시는 10월에 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기간에 참가 선수단과 응원단이 무료로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구광역시

고산정수장 에너지 테마파크로 변신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이 친환경 에너지 테마파크로 변신한다. 운문댐에서 끌어오는 수돗물 원수를 자연 냉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고산정수장에 2009년까지 소수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것.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수장인 운문댐과 고산정수장 착수장 간 50여 m의 높이를 이용해 연간 3,679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소수력발전 공동개발 협약체결'을 고산정수장 측에 요

청했다. 한편 고산정수장은 5월부터 국내 최초로 수돗물 원수를 활용한 자연 냉방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공동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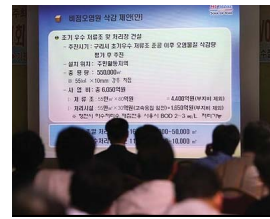
팔당호 유입지천 친환경입간판 15개 설치



경기도는 팔당호로 유입되는 하천 가운데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경안천을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1마을·1회사-1하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입간판을 용인시 신대천, 금어천 등 7곳과 광주시 구석말천, 썸메산골천 등 8곳에 설치했다. 입간판은 친환경 재질로 제작했고 하천 범람 등 설치 장소의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해 신대천을 비롯한 경안천 유입지천에 세워졌다. 경기도는 이번 입간판 설치를 통해 1마을·1회사-1하천 운동이 널리 전파되어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한 경안천 살리기 운동에 지역주민은 물론 민간단체, 기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한강수계 물 환경 관리 5개 시·도 워크숍



경기도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평 대명콘도에서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 한강수계 자치단체,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한강수계 물 환경 관리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제1회 5개 시·도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강수계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간의 물 환경 관리와 관련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동 연구·토론해 보다 향상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미래 물 환경 관리 행정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팔당물환경센터 이기영 박사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전망 및 대응방안', 한강유역환경청 구자관

유역계획과장의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추진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강동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개관



서울시 강동수도 사업소는 지난 8월 2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개관 현판식과 실험실 확충

준공식을 가졌다. 수도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급수설비 수질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본관 3층에 있던 수질실험실을 별관 1층으로 이전 확충한 것이다. 이로써 강동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갖춘 최초의 수도사업소로 기록됐다. 실험시설은 환경부의 기준에 따라 이화학실험실, 미생물실험실, 품질관리실로 구성되었다. 또 올해에 세균배양기 등 9종 10대의 실험기기를 추가로 구입함으로써 총 28종 66대의 수질검사장비를 확보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부천시

수돗물 품질인증제 실시



경기도 부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수돗물 품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수돗물 품질인증제는 수돗물 검사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탁도, 잔류염소 등 간단한 검사항목은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고 수돗물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중금속 등 11개 항목은 정밀실험을 통해 품질인증 스티커를 교부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원인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시스템이다. 신청은 부천시 홈페이지 정수과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전화(032-320-3580)로 하면 된다.

안산시

수돗물 명품화 선언



경기도 안산시는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460원으로 전국 평균

680원보다 32%가 낮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양인 하루 37만 9,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해 유수율이 96.4%(전국 평균 79.3%)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며 "동시에 노후관 개량 등의 체계적인 관망 관리, 수도요금인상 억제 등 모범적인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에게 정수장을 개방하여 수돗물의 정수과정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게 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상록수'를 생산해 무료로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수돗물 명품화에 힘쓰고 있다.

용인시

금학천 환경개선사업 본격화



관내 5대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 용인시는 10월 중

순경부터 금학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2010년 말 마무리 예정인 금학천 정비사업은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삼가동까지 이어지는 3.65km 구간에서 진행되며 모두 412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 구간에 수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테널분수, 바둑분수, 공원, 주차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양평군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법 통합 시행

경기도 양평군이 하수와 오수의 이원화 관리체계를 통합해 비효율성을 개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신설(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원전자부담금 부과기준 변경(하수 발생 모든 건축물→10㎡/일 이상 건축물) 등을 골



자로 한다.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법 개정으로 모든 주택의 신·증축과 1일 하수발생량 10㎡ 미만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하수도 원전자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하수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강릉시

경포호에 대규모 생태습지 조성



강원도 강릉시 경포호 일원에 생태습지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오

는 2009년까지 초당동 일대 경포호수 옆 옛 양어장 부지 3만 5,651㎡에 총 사업비 23억원을 들여 생태습지, 조류 및 어류 서식지, 생태탐방로 등을 갖춘 생태습지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옛 양어장 부지는 호수와 송림, 빗나무로 둘러싸여 경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경포호 배후 습지 복원을 통해 동해안을 대표하는 석호라는 명성에 걸맞은 생태 건강성을 회복하고 경포호 수질개선, 경포천과 경포호 연결, 생태탐방 및 학습 공간화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홍천군

화전농공단지 조성 기공식



강원도 홍천군은 9월 17일 김진선 강원도지사, 노승철 홍천군수, 조일현 국회의원

과 기업체 대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전농공단지 조성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된 홍천 화전농공단지지는 24만 8,859㎡ 규모로 국·도비 등 총 160여 억원이 투입되어 2008년 8월에 준공된다. 특히, 강원도와 홍천군은 화전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 통신, 상수도 시설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비 28억원을 투자하여 1일 350톤 처리용량의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입주기업들의 폐수처리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도 막아 쾌적한 환경의 전원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춘천시

농촌 소규모마을 수돗물 상수도 설치



강원도 춘천시는 시가지 주변마을이나 농촌 소규모 마을에 상수도관을 설치, 수돗물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북읍 용산리 주변마을과, 천전리 2군단 헌병대 마을, 신동면 금병복지회관 인근 등 6개 마을에 올 하반기까지 상수도 지선관로를 설치,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도심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았던 동면 장학리 하일마을, 석사동 여성회관 뒷마을, 강남동 만애마을 등에도 상수도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가 마무리될 경우 6개 지역 57세대 200명의 주민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남군

장흥댐 광역상수도 첫 통수



그동안 지하수에 의존하며 가뭄에는 고질적인 식수난을 겪어왔던 전라남도 해남문내지역에 장흥댐 광역상수도가 처음으로 통수됐다. 장흥군 지방상수도 취수원인 심동저수지의 원수 확보 및 수온상승으로 인해 정수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다, 9월 22일 해남군에서는 처음으로 장흥댐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받게 된 것이다. 이번 통수로 문내 16개 마을 903세대 2248명이 안정적인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의 간이급수시설로 생활용수를 사용해 온 27개 마을 등도 주관로시설을 마치고 소규모 관로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산시

수돗물 브랜드 '무학산 맑은물'

경상남도 마산시의 수돗물 이름이 '무학산 맑은물'



의미를 담고 있는데다 '맑은물'은 우리 수돗물의 깨끗하고 안전한 이미지를 담고 있어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10월 26일부터 열리는 국화축제에 브랜드 명칭을 홍보하는 수돗물 시음장을 열고 내년 3월부터는 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함께 350㎞ 수돗물 펌프병 20만병을 생산해 각종 공행사 시 시민들에게 식수로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진해시

먹는 물 검사결과 전 항목 '매우 만족'



경상남도 진해시 정수사업소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올해 먹는 물 분야 수질분석 능력평가인 숙련도 시험에서 수은 등 11개 전 항목에 '매우 만족'을 기록, 최고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수질분석결과 진해시 정수사업소가 아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란 평가를 받았다. 진해시 정수사업소는 전화신청을 통해 수질검사 접수는 물론 시료채수팀이 직접 방문해 시료채수 및 결과통보까지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는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부속 섬 개발 10개년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추자도·우도·비양도 등 부속 섬에 대해 내년부 306억원을 투자하는 도서개발 10개년 사업을 벌인다. 제주시에 따르면 방파제·물양장·저장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217억원이 들어가고, 급수시설과 도항선 건조, 도로 개설 등에 38억원을

투자한다. 복지회관·대합실 신축 등을 위해서도 31억원을 들인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추자도에는 다목적 복지타운과 방파제, 멸치젓갈 발효시설, 관광공원, 간이상수도 저장시설 등이 들어서거나 만들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광 섬 조성에 중점을 두고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오롱건설(주)

NPR공법으로 국무총리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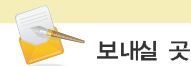


코오롱 건설은 '2007 국가환경경영대상 정부포상식'에서 하수처리공법인

NPR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NPR(Nitrogen & Phosphorus Removal)공법은 하천 오염의 주원인인 질소와 인을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1995년 특허 출원된 기술이다. NPR 공법은 현재 마산·창원·대전·성남·광주·원주 하수처리장 등에 적용해 국내 최대 적용 실적(총 200만톤/일)을 보유하고 있다. 점유율 면에서도 국내 하수고도처리공법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코오롱건설은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중국 베이징시와 NPR공법을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전국상하수도사이면 누구나 보는 협회지에 회원 여러분의 최근 소식을 담아보세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세요? 보도자료(사진자료 포함)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시오, 회원님들의 소식을 소중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

홍보팀 신재택 팀장, 공석진
Email : myakong@kwwa.or.kr
Tel : 02-3156-7733